

# 입학사정관 전형의 성패, 대학에 달렸다.

최병기 | 영등포여자고등학교 진학진로부장

올 입시의 최대 화두는 입학사정관 전형일 것이다. 연초 KAIST 총장의 발언으로 시작된 열풍(熱風)이 교과부의 예산 지원이라는 기름이 부어지자 광풍(狂風)으로 변화된 듯하다. 이는 흡사 2007년의 논술 광풍과 흡사하다. 그 때도 많은 대학들이 논술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앞 다투어 논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때 그들이 내건 이유가 ‘고교교육 정상화와 변별력’ 확보였다. 그런데 2008학년도 정시모집을 치루는 과정에서 수능성적을 다시 점수화해서 제공하겠다고 하니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논술을 폐지하고 있다. 이 때 역시 그들이 내건 이유는 ‘수험생의 학습부담 경감과 고교교육 정상화’였다. 도대체 무슨 잣대가 이렇게 이중적이란 말인가?

입학사정관 전형도 마찬가지이다. 작년에 일부 대학에서 도입하여 조심스레 시범 적용을 하였는데, 금년에는 많은 대학들이 마치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하지 않으면 도태라도 되는 듯 너도나도 입학사정관 전형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입학사정관 전형이 그

렇듯 준비 없이 적용해도 되는 전형인가? 선발인원만 늘린다고 입학사정관 전형을 제대로 했다고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입학사정관 전형은 사정관의 참여 범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전 과정 참여 전형이다. 입학사정관이 수험생의 서류평가와 면접평가에 모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부분 과정 참여인데, 서류나 면접평가 중 한 과정에만 참여하는 전형이다. 금년에는 전 과정 참여 전형보다는 부분 과정 참여 전형이 조금 많다. 도입 초기이니까 부분 과정 참여 전형이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입학사정관 전형의 전형요소를 보면 좀 의아해진다. 수시모집의 경우에는 ‘학생부 100%’, 정시모집의 경우에는 ‘수능 100%’ 전형들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시모집의 입학사정관 전형의 주류는 정원외 특별전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농어촌 학생, 전문계고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등)인데, 이들 전형의 전형요소가 대부분 ‘수능 100%’인 것이다. 이 전형에서 입학



사정관의 역할이 무엇인가? 대학 측에서는 지원 자격을 심사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전형은 지원 자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전형들이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20여 년간 일선 고교에서 입시지도를 해왔던 필자 개인의 입장에서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전형 방법은 2008학년도 정시모집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교사나 학생, 대학 측에서 본인의 입장과 다른 주장들을 하지만, 수능을 점수가 아닌 등급만 제공함으로써 치열한 점수 경쟁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켰고, 같은 등급 내에서의 상하 변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의 보완 차원에서 학생부의 실질 반영률을 높이고, 논술 등의 대학별고사를 확대 실시하였기 때문에 입시의 3대 전형 요소가 제대로 작동했었던 해라고 판단한다. 더군다나 학생부의 실질 반영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평소 학생들의 수업에 임하는 태도도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은 거의 모든 교사들의 평가였다. 그리고 논술이 도입됨으로써 기존의 지식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토론 수업 및 쓰기 교육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사고력과 논리력, 창의력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졌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 입시제도가 결과도 나오기 전에 반복되면서 현장교사로서 참담함을 느꼈었다. 그러던 차에 입학사정관 전형이 도입된다고 하여 검토해본 결과,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까지의 고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 잠재력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수능성적을 향상시켜 진학성적을 올리기 위한 경쟁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본인의 소질과 적성은 배제한 채 원서 쓰는 과정에서 대학 및 전공을 선택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반복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다보니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연계는 전혀 없이 고교 3년간의 교육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락되었다. 대학도 대학 고유의 건학이념이나 추구하는 인재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수능 1점이라도 높은 학생을 선발할 것인가에만 매달리는 선발 경쟁만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대학교육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와의 괴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져서 사회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재교육에 투입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입학사정관 전형이 도입되면서 학생의 특성(성적 등)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 및 모집단위와의 적합성,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런 입시에 의한 교육의 왜곡 현상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 전형을 왜곡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 아니면 기존의 특별전형의 일종으로 전락하고 말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갈망하는 현직교사의 입장에서 이 전형이 성공하기 위해서 대학 측에 몇 가지 부탁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전형을 정형화하려는 시도는 안했으면 한다. 모든 전형이 정형화된다면 공교육이 사교육에 밀리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일부 사교육기관에서는 입학사정관 전형의 스펙관리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유인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대학에서 작년에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집 등을 발간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일선 고교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사례집 발간이나 우수 포트폴리오 발표는 정말 재고되어야 한다. 전국의 모든 수험생은 각자 다른 소질과 적성,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을 어떻게 정형화된 잣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인가? 기존의 입시가 이런 시도를 하였기 때문에 전술하였듯이 고교교육이 대학 진학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사례집이나 우수 포트폴리오를 발

표하는 대학에 묻고 싶다. '금년에도 그 사례와 똑같은 스펙의 학생을 지원시키면 합격시킬 것인가?'

둘째, 대학은 입시에 관련된 정보를 공교육과 교류하여야 한다. 얼마 전에 강남의 모 사교육기관과 수도권 의 일부 대학들이 합동으로 입학사정관 전형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일부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뜨거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인가? 입학사정관 전형의 중요한 전형 요소 중 하나가 '학교생활기록부'이다. 이것은 사교육기관에서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공교육 교사의 강력한 평가 도구이다. 따라서 사교육기관에서는 어떻게든 학생부 이 실질 반영률이 높지 않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펙관리를 해준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과 연합해서 설명회를 하는 대학들은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학생부 보다 스펙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본인의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서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일관된 준비를 하는 학생을 우수한 학생으로 선발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의 진로 목표와 크게 상관없는 백화점식 스펙관리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일부 대학에서 그렇다고 판단했다면 이 전형 역시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진학이 결정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교 현장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해주었으면 한다. 전국의 2,100여 개 고등학교는 각자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다. 물론 교육과정은 획일화되어 있다 보니 교육과정상의 특성화는 크지 않겠지만, 그 이외 부분에서는 학교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교육여건의 차이는 심각할 정도이다. 이런 내용들을 입학사정관들이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자신

이 처해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진로를 개척하려고 노력하는 원석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일선 교사와 학부모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입학사정관의 노력에 이 전형의 성패가 달렸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

## 필 / 자 / 소 / 개

### 최병기

현재 영등포여자고등학교 진학진로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단 중앙위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논술연구회 간사로 활동 중이다.

“

입학사정관 전형의 성공을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제를 전형화려는 시도를 하지  
않길 바라며, 대학은 입시에 관련된 정보  
를 공교육과 교류하여야 하며, 고교 현장  
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

